

카드뉴스 제53호 | 6/14 세계 헌혈자의 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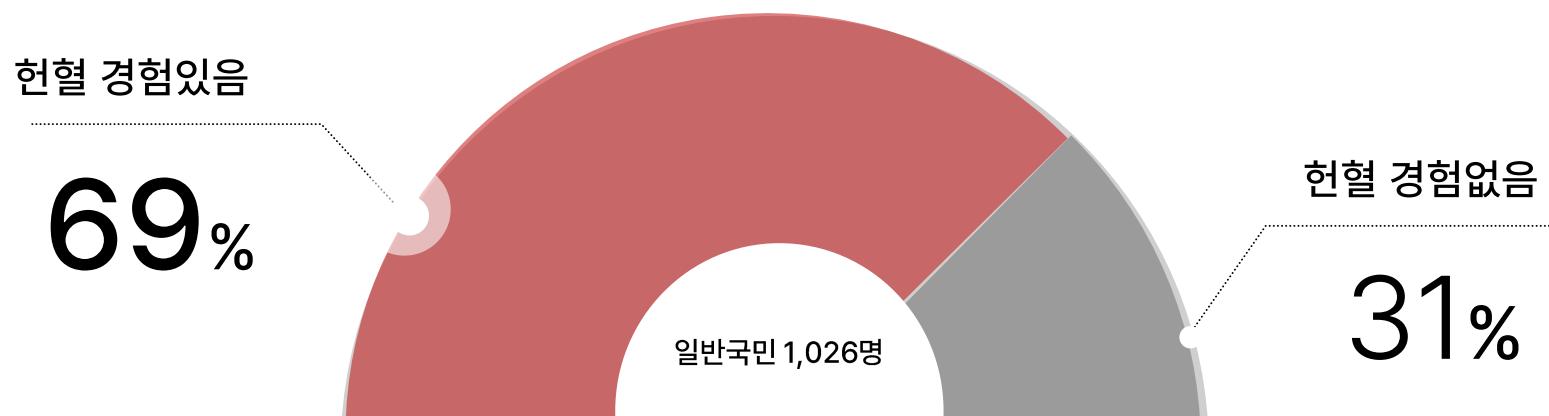
헌혈,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나눔



헌혈, 해본 사람이 더 많을까?

일반국민 10명 중 3명은 한 번도 **헌혈을 한 적이 없으며**,
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사람은 **극소수에 불과**

Q. 헌혈을 해본 경험 및 헌혈 빈도



(헌혈 경험자 713명)

주기적으로 헌혈

13%

간헐적으로 헌혈

28%

주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했으나,
현재 헌혈을 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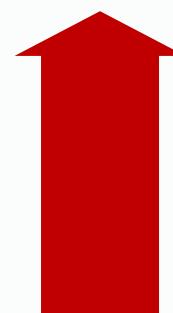
39%

1회만 경험

20%

헌혈경험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음

남성
83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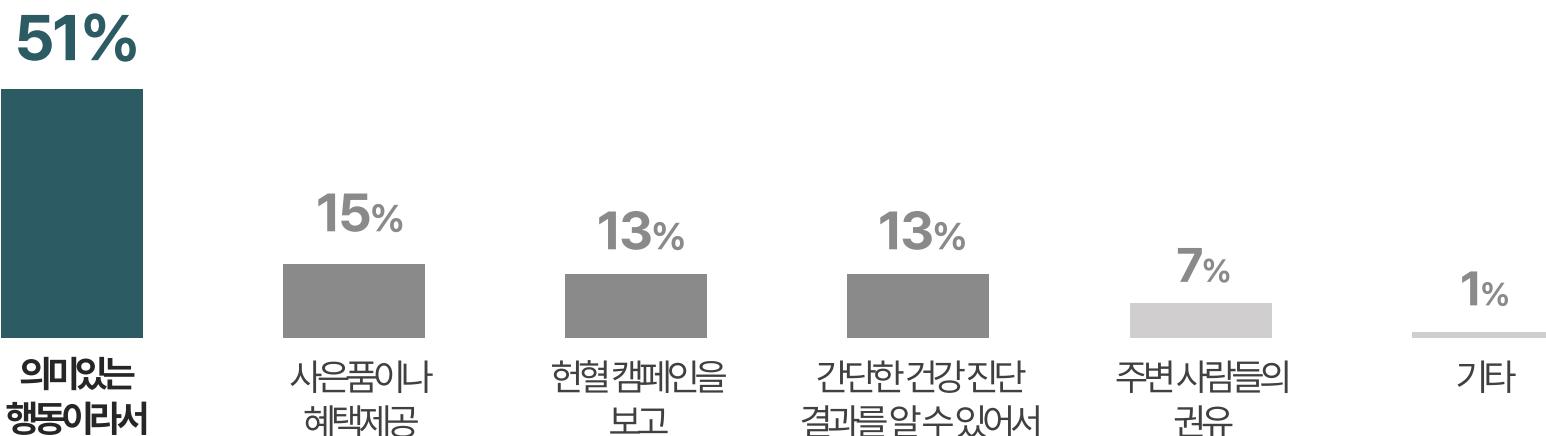
여성
45%



헌혈 경험자들은 헌혈이 '**의미있는 행동**'이라고 생각해서 헌혈에 참여함

Q. 헌혈을 하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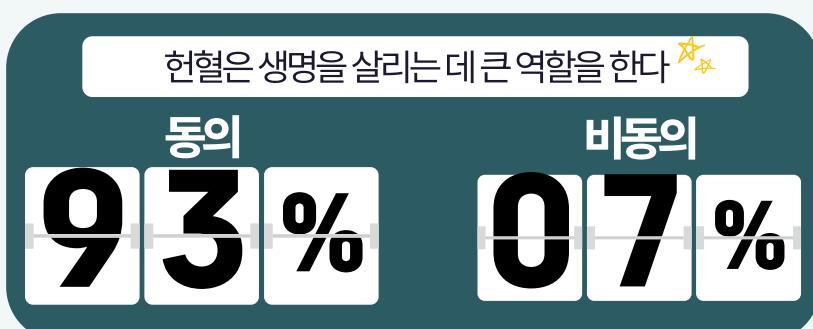
(헌혈 경험자 713명)



대부분의 국민들은 헌혈을 **긍정적으로** 바라봄

Q. 헌혈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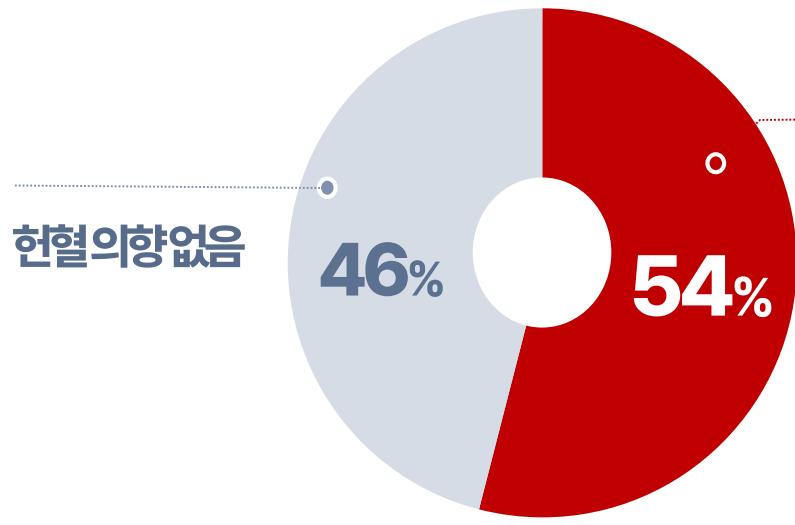
(전체 1,026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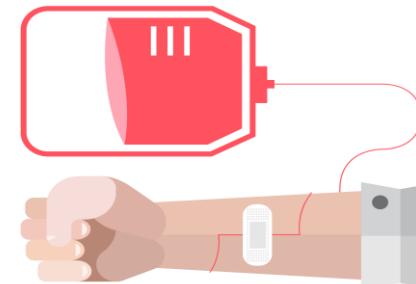
현재 헌혈을 하지 않고 있는 국민 중 과반수는 앞으로 헌혈을 할 의향이 있음

Q. 앞으로 헌혈을 할 의향

(현재 헌혈을 하지 않는 국민 731명)



헌혈의향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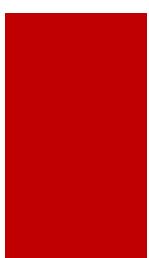


현재 헌혈을 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
사전문진 탈락, 건강이상 등 '헌혈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'로 나타남

Q. 현재 헌혈을 하지 않는 이유

(현재 헌혈을 하지 않는 국민 731명)

50%



헌혈이 가능한
상태가 아니어서

17%



헌혈을 할
시간이 없어서

15%



건강 등에 좋지
않을 것 같아서

9%



헌혈에 관심이
없어서

8%



채혈 기관에 대한
불신 때문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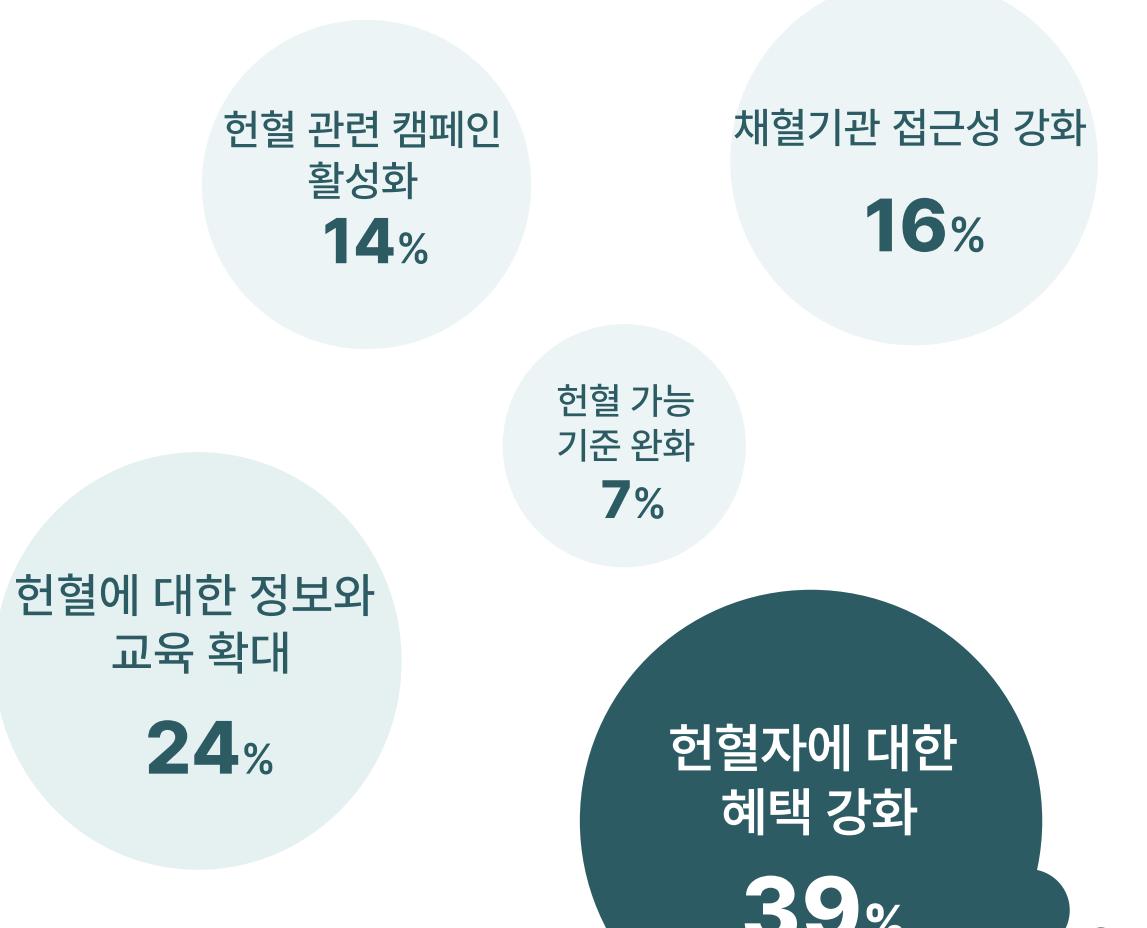
1%

기타

헌혈 활성화를 위해 '헌혈자에 대한 혜택 강화'가
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

Q. 헌혈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점

(전체 1,026명)



이번 주말, 현혈의 날을 맞아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?

조사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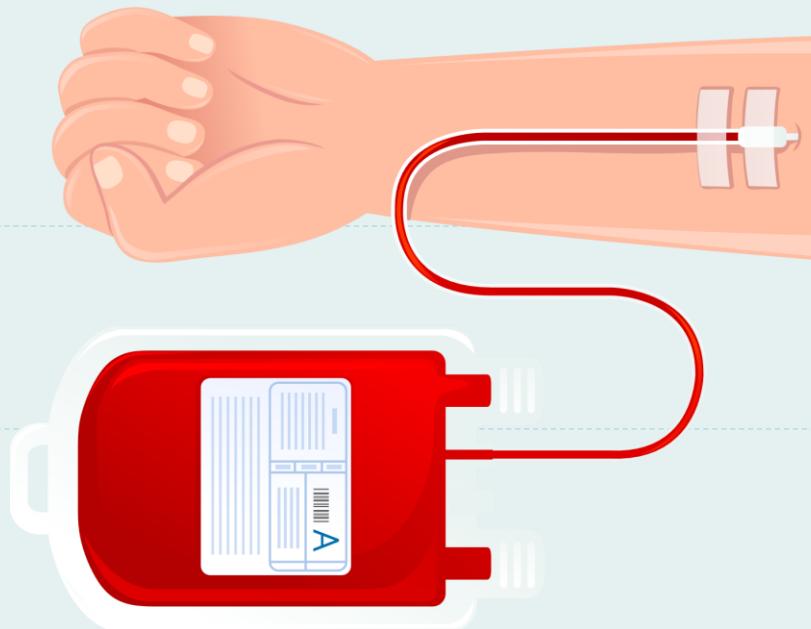
▶ 2025.05.16.~19.

조사방법

▶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
온라인 웹 조사

조사대상

▶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
1,026명



케이스탯은 품질 높은 데이터 생산을 바탕으로
고객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사이트와 컨설팅을
제공해 드립니다.

Kstat

http://www.kstat.co.kr

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

02-6188-6000

admin@kstat.co.kr

